

영화 <김씨표류기>: 현대 글로벌 소비사회의 사회학적 보고서*

신정아 · 최용호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며

2009년 개봉된 이해준 감독의 영화 <김씨표류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란 성을 지닌 두 남녀의 매우 드문 일상을 영상화한 작품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자 김씨는 빚 때문에 파산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뒤 한강에 투신했다가 무인도인 밤섬으로 흘러들어 표류하고, 여자 김씨는 오랜 따돌림으로 상처받고 방안에 틀어박혀 오로지 미니홈피 관리로 소일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루저’로 지칭되는 주인공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때로는 로맨스와 소통의 이야기를 담은 “하이 컨셉 코메디”¹⁾로, 때로는 “일정한 격리를 통해 생을 갈구하는” “불량남녀”의 “생에 대한 갈구”²⁾의 이야기 등으로 소개되었고, 비평적 관점에서 보자면 때로는 “일말의 희망을 찾아가는 두 인물의 연대를 통해서

* 이 논문은 201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음.

1) 두나, 「김씨표류기 리뷰」, *Extreme movie*, 2009. 4. 29.

2) 이영진, 「일정한 격리를 통해 생을 갈구하는 두 남녀 <김씨표류기>」, 『씨네21』, 2009. 5.13.

관객에게도 모종의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강조되거나,³⁾ 때로는 “상처받고 숨어든 인간들의 당당함”이 부각되기도 하였다.⁴⁾

그런데 비평가 혹은 관객에 따라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희망’으로 보든 ‘소통’으로 보든, 아니면 영화의 비극적 현실을 강조하든 희극적 코믹함을 강조하든 간에, 이 영화가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인터넷 이상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작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 영화는 “상황의 비극을 유희로 역전”⁵⁾하면서 시종일관 코믹한 희극적 색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희극적 웃음의 기저에는 분명 현대 글로벌 소비사회에서 잉여로 분류되는 “인간쓰레기”, 좀 더 정확하게 사회학자 바우만(Zygmunt Bauman)의 용어로 얘기해서 쓰레기가 된 인간들의 비참한 삶이 놓여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바우만은 그의 저서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어 버린 삶의 조건임을 직시하면서, 쓰레기 생산을 이러한 현대화 과정의 불가피한 산물로 제시한다. “여분의, 불필요한, 쓸모없는 것을 잘라내 버림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움며 만족스럽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⁶⁾ 믿음을 맹신하는 현대 글로벌 소비사회에서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품은 즉시 쓰레기로 분류 폐기되는데, 바우만에 따르면 인간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⁷⁾. 즉, 무한 자유경쟁 체제에서 어떤 이유로든 도태되어 “여분의, 불필요한, 쓸모없는 것”으로 낙인찍히는 순간 인간의 삶 역시도 쓰레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쟁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자기들만의 외딴 공간에 틀어박히게 된 루저들의 이야기인 <김씨표류기>는 바우만이 ‘유동하는 근대’로 정의한 현대 글로벌 소비사회에서 용도 폐기된 표류하는 삶의 훌륭한 사회학적 보고서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3) 민용준, 「욕망을 통해 진화하는 이야기꾼 <김씨표류기> 이해준 감독」, 『무비스트』, 2009. 5.28.

4) 김지미, 「그래도 동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씨네21』, 2009. 6.4.

5) 민용준, 앞의 기사.

6)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2008, 50면.

7) 위의 책, 20-21면.

영화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소품이자 배경 그 자체인 쓰레기 더미와, 각각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아가는 두 남녀 김씨의 삶이야말로 바우만이 말한 ‘쓰레기가 되는 삶들’의 이미지를 그 어떤 설명보다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김씨표류기>라는 영상보고서가 쓰레기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괴로운 문제인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비밀”⁸⁾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지점들을 바우만의 사회학적 개념에 기대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동안 의도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배제되고 가려진 목소리들을 들리게 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이른바 랑시에르적 의미⁹⁾에서의 정치적 몸짓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론 1장에서는 바우만의 현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화의 불가피한 부산물인 ‘쓰레기’ 양산의 원인들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어 2장에서는 특히 현대 소비자 사회의 쓰레기와 관련해 소비자의 윤리와 소비의 미학을 검토하고, 불량 소비자로 쓰레기가 되어버린 두 남녀 김씨의 버려진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 영화에서 쓰레기하치장의 이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여자 김씨의 골방과 남자 김씨의 밤섬의 위상학적 구조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삶을 사는 두 주인공의 잉여적 삶의 형태 속에서 현대 글로벌 소비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경쟁과 배제 시스템의 메커니즘에 자그마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전복적인 가능성을 탐색한 다음, 뒤이은 결론에서 그 한계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현대화의 또 다른 얼굴 - 설계 강박증과 쓰레기

사이버 세계에 갇혀 지내는 여자 김씨가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이른바 썬더족이라면 카드빚에 쫓겨 결국 밤섬으로 떠밀려온 남자 김씨는 이 섬으로 떠내려 온 도시의 쓰레기 덕에 연명하는 내버려진 존재이다.

8) 위의 책, 58면.

9)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 b. 2008.

두 남녀 김씨는 각자의 방과 섬에서 고립된 채 고독하고 불필요한 잉여의 삶을 영위한다. 이들의 일상이 증언하는 표류하는 삶의 고독한 몸짓은 경쟁시스템으로 작동하고 배제시스템으로 유지되는 현대 글로벌 소비사회에서 결국 뒤처지고 버림받고 홀로 몸부림쳐야 하는 다수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잉여인간’ 혹은 ‘쓰레기가 되어가는 삶들’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 실제로 백소영의 말처럼 예컨대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체제 하에서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대략 80퍼센트의 젊음은 잉여”로 전락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¹⁰⁾ 그렇다면, 애초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잉여’가 쓰레기가 되고¹¹⁾, 급기야는 인간에게까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우만은 이처럼 버려진 삶들이 오늘날 쓰레기처럼 ‘쌓이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르네상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대성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현대성이란 “설계 강박증과 설계 중독에 빠진 상태”로 정의될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리고 운명적으로 “설계가 있는 곳에 쓰레기도 있다.”¹²⁾ 이는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대리석판 한 개를 골라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깎아내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완성되는데, 이와 동시에 깎여나간 불필요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쓰레기로 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만은 르네상스 대가의 고백을 “현대의 창조를 이끌게 될 계율”이라고 평가한 다음, “쓰레기의 분리와 파괴가 현대적 창조의 비법이 되었다”고 선언한다.¹³⁾ 말하자면 설계는 “불필요한 부분

10) 백소영, 「잠재성을 잉여라 부르는 세상」,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이파르, 2011, 35면.

11) 백소영의 지적처럼, 나머지를 일의 말 ‘잉여’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선의 대상은 아니었다. 예컨대 인류가 채집과 수렵으로 살아가던 시절, 먹고 남은 잉여는 겨울철을 위해 잘 관리하고 저장해야할 소중한 식량이었을 테고, 고대 농경사회에서 잉여의 곡물은 다른 생필품과 맞바꾸거나 금전화할 수 있는 ‘쓸모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후 잉여의 과잉분이 점차 많아지고, 특정 계층에게 편중되면서 잉여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싸움과 전쟁이 빈번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여전히 잉여는 쓰레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백소영, 앞의 글, 16면.

12) 바우만, 앞의 책, 64면.

13) 위의 책, 49면.

을 깎아냄”으로써 아름다운 윤곽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질서로 간주되는 것을 허물어야 하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무법 상태로 간주되는 것을 배제하고 금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파괴함으로써 창조한다는 역설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근대인들을 사로잡았던 설계 강박증이란 결국 쓰레기 혐오증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무질서가 무질서로, 무법 상태가 무법 상태로, 쓰레기가 쓰레기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 세계, 이야기의 각광도 받지 못하고, 디자이너의 가
봉도 받기 전의 세계는 질서가 있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으며 또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질서의 전망과 더불어 무질서를, 깨끗함의 기획과 더불어
더러움에 한데 불러 모으는 것은 인간이 그리는 설계도다.¹⁴⁾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질서도 무질서도, 법도 무법도, 깨끗함도 더러움도, 필요도 불필요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질서의 전망”과 더불어, “깨끗함의 기획”과 함께, 요컨대 “인간이 그리는 설계도”에 따라 정의되는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어떤 전망을 품고 있느냐, 어떤 기획을 수행하고자 하느냐, 어떤 설계도를 그리려고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채택된 전망, 기획, 설계도에 따라 무질서, 무법, 더러움, 불필요가 분리·수거되고 제거되는 것일 뿐, “있는 그대로 드러난 세계”는 모든 가치에 대해 중립적이다. 본질적으로 “안다는 것이 선택한다는 것”¹⁵⁾이라면 질서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설계도를 작성하는 일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지속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한 소위 현대화의 과정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질서 구축”이라는 현대성 개념이 인간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새롭고 전보다 향상된 인간적 결속의 형태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14) 위의 책, 46면.

15) 위의 책, 43면.

이는 신분이나 출신에 따라 인간의 위계가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따라 인간의 유용성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질서 구축의 설계도에 맞지 않거나 위배되는 사람들¹⁶⁾은 주권 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배제되어 쓰레기로 내몰리게 된다.¹⁷⁾ 한편 근대산업사회부터 후기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는 현대화의 과정은 경제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은 질서구축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동반하는데, 그로부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앞서의 질서구축 과정의 희생자들과 비교해 볼 때, 경제발전의 부산물, 즉 바우만이 “잉여 인구”라 명명한 인간쓰레기들은 “경제발전에 따른 의도되지도 않고 계획되지도 않은 ‘부수적 희생자들’”¹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대화 과정의 필연적 부산물이자 현대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쓰레기가 오늘날 현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바우만은 오늘날 인간쓰레기가 전(全)지구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현대성의 전지구적 승리가 낳은 치명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16) “그런데 인간적 결속의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는 인간이 쓰레기가 된다. 설계된 형태에 맞지 않거나 앞으로 맞지 않게 될 일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다. 또는 설계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그로 인해 투명성을 흐리게 할 사람들. 정체모를 오드라데크나 고양이와 양의 교배종 같은 카프카의 괴물과 돌연변이들 - 피상적인 포함/배제 범주에 도전하는 괴짜, 악당, 잡종들. 그들만 아니라면 우아하고 평온했을 풍경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 흔적을 없애거나 지워버림으로써만 설계된 형태가 보다 일관되고 조화롭게 안전하고 전체적으로 더 안정감 있게 되는, 흠 있는 존재들.”, 위의 책, 64-65면.

17) 바우만에 따르면, “현대라는 시대 내내 국민 국가는 질서와 혼돈, 법과 무법, 시민과 호모 사케르, 소속과 배제, 유용한(=합법적인) 생산품과 쓰레기 사이의 구분을 관장할 권리를 주장해왔다.”(『쓰레기가 되는 삶들』, 69면) 여기서 사회학자 바우만은 정치철학자 아감벤과 그의 저서 『호모 사케르』를 명시적으로 참조한다. 흥미롭게도 쓰레기더미에 묻힌 불결한 삶은 수용소에 갇힌 호모 사케르의 신성한 삶과 매우 닮아 있다. 호모 사케르는 “신의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인간의 법정 밖으로 내쫓긴 존재”(위의 책, 67-68면)로 질서구축 설계도의 희생자들이다. 호모 사케르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를 참조할 것.

18)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80면.

그러나 지구는 지금 만원이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질서 구축과 경제 발전 같은 전형적인 현대화 과정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그에 따라 모든 곳에서 ‘인간쓰레기’가 점점 더 많이 생산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쓰레기의 저장과 잠재적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연적’ 쓰레기 처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룩셈부르크가 한 세기 전에 예견했던 과정(사회적인 용어로 분명히 기술하기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용어로 기술했지만)이 궁극적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¹⁹⁾

“룩셈부르크가 한 세기 전에 예견했던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발전을 위한 환경으로 비자본주의적 사회 조직들을 필요로 하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존속을 유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조건을 먹어치움으로써 전진한다.”²⁰⁾ 마치 “자기 꼬리를 먹고 사는 뱀”(p.131)처럼 자본주의는 자신의 존속에 필요한 비자본화된 영토를 “먹어치움으로써” 어리석게도 자신의 존재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며 “전진”하는데, 글로벌 소비사회에 이르러 더 이상 “전진”할 곳을 찾지 못하자 “궁극적인 한계”에 도달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사의 상당 기간 동안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설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쓰레기를 자본화된 영토 ‘밖’으로 내다버리는 일이 가능했다면, 이른바 현대화 과정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밖’이, 비자본화된 영토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구는 지금 만원이다”라는 바우만의 정치·사회학적 명제는 자본화된 지구촌에 더 이상 ‘밖’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잉여 인구의 배출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모두가 인간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전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함의한다.

19) 위의 책, 130면.

20) 위의 책, 같은 면.

3. 소비자 사회와 쓰레기

1) 소비자의 윤리와 소비의 미학

영화 <김씨표류기>는 더 이상 밖이 존재하지 않게 된 사회 속에서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아가면서 자신들도 쓰레기가 되어버린 두 김씨의 삶의 형태를 아이러니컬하게, 다시 말해 비극적이고도 희극적인 방식으로 조명한다. 이 영화가 그리는 한국사회는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대출회사 직원의 “쇼핑처럼 쉽고 빠른 대출”이라는 멘트처럼 모든 것을 쉽게 사고팔며,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소비 자체가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 또한 사회의 전 구성원이 “무엇보다도 소비자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지배를 받”²¹⁾는 소비자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바우만에 따르면, 이전 형태의 근대사회, 즉 ‘생산자 사회’가 사회의 구성원들을 일차적으로 생산자로 간주했다면, 후기 근대, 2차 근대, 포스트모던의 소비자 사회를 지배하는 규율은 “누구든 특별한 무엇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²²⁾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판매 박은 행동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하는”²³⁾ 미덕을 지닌 이른바 “성숙한” 소비자만이 제대로 환대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 불완전하고 능력 없는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자리와 역할도 할당되지 않는다.

생산자 사회(생산 라인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에서는 아무리 실업자들이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의 그들의 자리는 의심할 바 없이 확고했었다. 필요할 때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강력한 예비군의 필요성을 생산 전선에 있는 어느 누가 부인하겠는가? 소비자 사회에서 미완의 소비자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들이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게임에서 탈락하면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한때는 잠재적 생산자라는 것만으로도 생산자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21) 바우만, 『새로운 빈곤』, 천지인, 2004, 47면.

22) 위의 책, 52면.

23) 위의 책, 49면.

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부지런한 소비자가 되겠다는 약속과 소비자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비자 집단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 소비자 사회에는 흠이 있고, 불완전하고, 미완인 소비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²⁴⁾

이전 생산자 사회에서 실업자는 재취업의 기회를 엿보면서 생산 라인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는 “강력한 예비군”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회에서 이들의 자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고했다. 이들은 모두 “잠재적 생산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기 근대 소비자 사회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소비자 사회는 말하자면 소비의, 소비를 위한, 소비에 의한 사회이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물건이 아니라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유희이, 본질이 아니라 외관이 구매를 결정하며, 따라서 상품은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잠시라도 그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늘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칼비노(Italo Calvino)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 등장하는 도시 레오니아에서처럼 소비자 사회의 구성원들은 매일 “최신형 냉장고에서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캔들을 꺼내며 최신 모델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근 소식을 듣”고, “새롭고 다양한 물건들을 즐기는 것에 열정을 쏟으며”²⁵⁾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오직 새것만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오래된 것은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즉각적인 폐기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철저하게 미와 추의 기준에 따라 설계된 사회가 바로 소비자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진열대에 전시된 물건은 물론 소비 대상으로 전락한 인간마저도 미와 추의 기준에 따라 상품이나 쓰레기냐가 결정되어버린다. 소비자 사회는 또한 소비할 능력을 갖춘 소비자들만을 위한 사회이기도 하다. “불완전하고 미완인 소비자들을 위한 자리”는 이곳에 없다. 소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즉시 그곳에서 영원히 추방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매력적인 상품과 이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비자만을 위한 사회, 이것이 오늘날 소비자 사회의 본질인 것이다.

24)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35면.

25) 이탈리아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현경 옮김, 민음사, 2007, 148면.

이렇게 ‘미와 추’, ‘능력과 무능력’이라는 두 가지 “질서의 전망”에 따라 설계된 소비자 사회는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양산하게 된다. 소비되고 버려진, 또는 소비되기 전에 버려진 추한 상품 쓰레기들과, 소비 능력, 이른바 구매력을 상실하거나 애초부터 이 능력을 갖지 못한 인간쓰레기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대 소비자 사회에서 용도 폐기된 상품과 게임에서 방출된 자격미달의 소비자들은 쓰레기로 분류되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이 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는 쓰레기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생산물이지 쓰레기가 아니다. 두 종류의 트럭이 날마다 공장을 떠난다. 하나는 창고와 백화점으로, 다른 하나는 쓰레기장으로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는 첫 번째 종류의 트럭만 주목하라고 (중시하고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를 훈련시켜왔다. 반면 두 번째 종류의 트럭에 대해서 우리는 쓰레기 더미가 눈사태처럼 쓰레기 산으로부터 무너져 내려와 우리 뒷마당을 둘러싼 울타리를 뚫고 침범하는 경우(다행히 아직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지만)에만 생각한다. 험한 지역, 더러운 거리, 도시 빈민굴, 망명자 수용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제한 구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쓰레기 산들을 현실에서든 생각에서든 찾지 않는다. 관광할 때 들떠서 모험을 하는 중에도 그런 지역들은 조심스럽게 피해 다닌다(또는 그런 곳을 피하도록 인도된다). 우리는 극히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즉 쓰레기를 보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일상의 기본적인 방어막이 무너지고 예방책이 실패했을 때만, 이러한 방어막이 보호해야 할 생활세계의 안락하고 몽환적인 폐쇄성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만 쓰레기에 대해 걱정한다.²⁶⁾

우리가 서론에서 현대 소비자 사회의 사회학적 보고서라 칭했던 영화 <김씨표류기>가 카메라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던 이 불편한 진실이다.

26)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58-59면.

2) 잉여의 불량 소비자

<김씨표류기>의 주인공 남녀 김씨는 각각 현대 소비자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합인 불량 소비자이다. 캥거루족인 여자 김씨가 자신의 수입이나 능력 없이 부모의 경제력에만 의존하는 과잉의 소비자라면, 대출원금에 이자까지 모두 “1억 천 3십만 8천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남자 김씨는 결핍의 소비자이다. 과잉이든 결핍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일한 게임”을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미완인 소비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주의 게임에서 패배했거나 배제당한 이들은 게임의 폐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회에서 불필요하고 무용한 잉여적인 여분의 존재들이 되었다.

‘잉여’란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을 의미한다. - 유용성과 필수불가결함의 기준을 설정하는 필요와 유용성이 무엇이든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 없이도 잘 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할 어떤 자명한 이유도 없고,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만한 어떤 뚜렷한 정당성도 없다. 잉여로 규정된다는 것은 버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치 환불해주지 않는 빈 플라스틱 병이나 일회용 주사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아무도 사지 않는 상품, 조립 라인에서 품질 검사관이 버리는 바람에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기준 미달 제품이나 불량품처럼 말이다. ‘잉여’는 ‘불합격품’, ‘불량품’, ‘폐기물’, ‘찌꺼기’ - 와 그리고 쓰레기 - 와 의미론상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실업자’, ‘노동 예비군’의 목적지는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쓰레기의 목적지는 쓰레기장, 쓰레기 더미이다.²⁷⁾

쓰레기가 되는 삶들은 잉여로 내몰린 삶들이다. 이 삶은 잠시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실업(失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실업은 재취업의 가시권 안에 들어 있지만 잉여로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 바우만은

27) 위의 책, 32면.

이러한 잉여의 개념이 “‘비정상’, 질서로부터의 이탈, 현재 불행의 일시적 본성”²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잉여는 남아도는 것, 과잉, 불필요한 것”이며, 경제는 그들이 없어야 더 나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²⁹⁾ 실업자의 최종 목적지가 “노동 현장”이라면 잉여적 삶의 최종 목적지는 “쓰레기장”이다. 잉여는 “버려져도 무방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쓰레기가 되는 삶들로, 이들은 중국에는 가시권 밖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몰릴 운명에 처해있다.

소비자 사회에서는 “인간적 결속의 형태”를 미와 추 그리고 능력과 무능력으로 과감하게 재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추한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다. 역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추한 사람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여자 김씨는 이마에 크게 난 화상의 상처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곳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추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탁탁탁..... 책상.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허리까지 오는 푸석한 긴 머리.... 손톱에 잔뜩 끼있는 손톱 때..... 며칠 째 씻지 않은 꼬질꼬질한 목덜미..... 성별도 알 수 없는 그 모습은..... 로빈슨 크루소보다 더 로빈슨 크루소 같다. 마침내 긴 머리 사이로 드러나는 얼굴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찢기 없는 하얀 얼굴의 여자. 긴 머리를 늘어뜨려 아직은 확실히 볼 수 없으나..... 짧은 순간 잠깐씩 드러나는..... 일그러진 이마..... 화상으로 인한 상처. 긴 앞머리는 아마도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한 것인 듯.³⁰⁾

여자 김씨가 외부와 단절하고 골방에 칩거한 것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능력과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현대 소비자사회에서 추한 외모란 특히 20대 젊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 김씨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감추고 아름답게 가장

28) 바우만, 『새로운 빈곤』, 127면.

29) 위의 책, 같은 면.

30)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29.

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확보하고 다니는 사이버 세계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가짜 흥미를 만들어 돌로레스라는 이름으로 행세한 여자 김씨는 유행을 선도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만인의 추앙을 받았지만, 네티즌들에 의해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악의적 댓글들로 인해 사이버세계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다. 현실에서는 쟁거 루족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상에서는 신상이 털린 여자 김씨는 중국에는 “불합격품, 불량품, 폐기물, 찌꺼기”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여자 김씨가 미와 추의 기준에 의해 네티즌들에게 난도질당하고 인간쓰레기로 취급되었다면, 남자 김씨는 능력과 무능력의 기준에 의해 인간쓰레기로 내몰린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남자 김씨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다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불완전한 미완의 소비자이다. 밥섬에 고립된 후 공포감에 살고자 다시 강변으로 건너가려 하지만 수영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도시와 밥섬 사이의 거리는 너무도 멀고, 한강물은 너무나 깊다. 몇 번을 물속에 빠져 발버둥치는 남자에게 떠오르는 일련의 기억들은 불량 소비자가 되어 게임에서 방출된 그의 처지를 상기시킨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고 허우적대는 남자를 도와주는 커닝 욕박지르기만 했고, 애인은 무능력한 것이 나쁜 것보다 더 나쁘다는 소비자 사회의 진리를 내세워 당당히 그를 차버렸으며, 재취업을 위한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들은 그의 나이와 토익 점수를 들먹이며 자격 미달의 후보라는 사실을 넌지시 비춘다.

면접관1 : (서류 넘기며) 재취업이긴 해도.....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면접관2 : 토익이 700도 안되네.....

면접관3 : 회사는 왜 그만 두셨어요?³¹⁾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떠올리며 남자는 기대를 접고 망연자실하다가 다시 깊지도 않은 강물 속으로 빠져든다. 이 장면은 그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아니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것임을 암시한다. 사실상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온전한 소비자들만을 위한 사회에서 두 남녀 김씨를

31)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9.

위한 자리는 없다. 이들은 “강력한 예비군”이 아니라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게 된” 소비의 게임에서 탈락한 자들이다.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오직 쓰레기하치장인 골방과 밤섬뿐이다. 그렇기에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남자 김씨가 도시의 온갖 폐기물들과 마찬가지로 강물을 타고 밤섬으로 흘러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3) 골방과 밤섬 : 쓰레기의 역설

<김씨표류기>에서 카메라 전면에 등장하는 여자 김씨의 골방과 남자 김씨의 밤섬은 산뱀처럼 썩인 쓰레기의 이미지로 우리를 압도한다. 먼저 영화에서 어둠 속에서 여자 김씨가 등장한 후 차차 밝아지는 화면 속에 펼쳐지는 그녀의 골방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한,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어느 작은 방. 대낮이지만 커튼이 쳐진 방은 어둑하기만 하다. 구겨진 사발면 용기, 먹다 남은 누런 사과,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봉투.....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지저분한 방.³²⁾

은둔형 외톨이로 부모를 포함하여 일체의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오직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세계에만 접속하며 살아가는 여자 김씨는 실생활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예컨대 우유, 생라면, 옥수수캔 같은 것들만을 소비한다. 그렇기는 해도 여자의 소비의 흔적들은 쓰레기로 남고, 어딘가 버려질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여자의 방으로 상품과 소비재가 들어오기만 할 뿐 쓰레기가 밖으로 배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자가 소비한 것들은 그대로 방안에 고스란히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한편, 남자 김씨가 거주하는 밤섬은 도시가 버린 쓰레기,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모래사장. 비닐 포대를 질질 끌며 강물에 떠내려 온 쓰레기들을 뒤지고

32)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 29.

있는 남자. 모래 속에서 무언가를 주워 든다. 세탁용 세제통이다. 흔들어 본다. 새 거다. 남자, 비닐 포대에 세제를 집어넣는다. 포대 안에는 깨진 세수 대야, 빈 PET병, 부러진 대걸레..... 죄다 쓸데없는 것들뿐이다.³³⁾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남자 김씨가 떠밀려 도착한 곳은 밤섬이다. 밤섬은 그곳에 세워진 표지판이 말해주듯 “철새보호 구역”으로 “00법에 의거 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자연의 요새이다. 그런데 “자연의 요새”라는 표지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밤섬은 도시 밖의 순수한 자연도, 도시 안의 비밀의 화원도 아니다. 밤섬은 도시로부터 버림받은 소외의 장소가 아니라, 도시로부터 버림받은 것들이 몰려드는 잉여의 하치장이다. 이곳으로 매일같이 쓰레기를 날라다주는 트럭은 한강이다. 밤섬에 없는 것이 없는 이유는 도시에서 버리지 못할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비닐 포대, 세탁용 세제통, 깨진 세수 대야, 빈 PET병, 부러진 대걸레, 생선상자, 짜파게티, 슬리퍼, 오리배, 술병 등 온갖 도시의 폐기물들이 강물을 타고 밤섬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 만원이 된 도시에서 도시가 도시 밖으로 버린 것들이 배출구를 찾지 못한 채 도시 안의 숨겨진 장소로 몰려드는 것이다. 쓰레기를 배출할 출구가 없어 쓰레기가 쌓여가던 여자 김씨의 골방과, 분명 도시 안에 존재하는데도 보이지 않는³⁴⁾ 쓰레기하치장 밤섬은 글로벌 소비사회에서 쓰레기를 처분할 ‘밖’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안’이 점차 ‘밖’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없이 증언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해준 감독은 영화를 통해 현대 소비자 사회가 “보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든” “쓰레기 신”을 과감히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든다. 지구가 만원이 된 이유는 필경 먼저 개인 각각의 골방이 만원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어서

33) 위의 글, # 17.

34) 한강에 투신자살한 후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밤섬에 도착한 남자가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멀리로 지나가는 한강 유람선을 향해 손을 흔든다. 그 때 유람선 위에 서있던 한 남자가 그를 본 듯 만 듯 웃으며 손을 흔들고 지나간다. 유람선의 남자에게는 밤섬에 표류하는 버려진 존재의 절망적 몸짓이 전혀 의미가 없으며, 관심 밖의 보이지 않는 대상인 것이다. 이 장면이야말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쓰레기의 운명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 만원이 되었기 때문이라. 더 이상 밖이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안이 스스로 밖이 되어가는 공간이 바로 골방과 밤섬이다. 안도 밖도 아닌, 안이면서 동시에 밖인 이곳에 상품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간쓰레기가 쌓여간다. 가장 ‘밖’에 있어야 할 것들이 가장 ‘안’에 있다는 것이 골방과 밤섬의 위상학적 구조가 지닌 역설이다.

4. 잉여적 삶의 형태

바우만에 따르면 잉여는 “‘불합격품’, ‘불량품’, ‘폐기물’, ‘찌꺼기’ - 와 그리고 쓰레기 - 와 의미론상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³⁵⁾ 소비되고 난 다음 폐기된 것들이 잉여라면 이 잉여로 살아가는 삶의 독특한 방식이 잉여적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서 쓰레기로 내몰린 잉여의 삶들이 꾸려가는 삶의 형태는 그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이 장에서 우리는 남녀 김씨의 잉여적 삶의 형태 속에서 물셀 틈 없이 견고하게 보이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새로운 사용

소비자 사회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더 이상 소비될 수 없는 불필요한 잉여이다.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유동하는’ 혹은 ‘액체’ 근대로 규정하는데,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아버리는’, 고체성 대신 액체성 또는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같은 동적(탈)근대에서는 지속 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³⁶⁾ 그런데 흥미롭게도 <김씨표류기>에서는 한번 쓰고 버린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보다 정확히 말해 두 남녀 김씨는 ‘소비’할 수

35)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32면.

36) ‘유동하는 근대’ 혹은 ‘액체근대’에 대해서는 바우만의 책,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강, 2000을 참조할 것.

없게 된 쓰레기를 다시 ‘사용’한다. 소비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적인 행동이지만 사용은 두고두고 쓰는 지속적인 행위이다. 소비와 사용을 상(相)적인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전자는 일회적이고 후자는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쓰레기를 사용하는 두 김씨의 방식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활용이 아니다. 버려진 물건을 고치고 수선하여 재생시킴으로써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다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자 김씨는 토스트기가 아니라 다리미로 식빵을 굽는다. 남자 김씨는 떠밀려온 오리배로 “연이자 6%..... 주택 청약 적금 7년 만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³⁷⁾을 이룬다. 망가진 오리배를 고쳐서 다시 오리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으로 개조한 것이다. 또한 비닐 포대로 어망을 대신하고, 세수 대야로 새 덧을 대신한다. 이러한 쓰레기 사용법은 소비자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 두 남녀 김씨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버려진 물건들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 다시 말해 쓰레기로 꾸며진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꾸만의 잉여 개념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잉여로서의 삶은 버려진 삶이요, 쓰레기가 되는 삶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념만으로 <김씨표류기>를 읽는다면 이 영화가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전체적으로 대단히 희극적인 톤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이 영상 보고서가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것은 쓰레기의 새로운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잉여적 삶의 형태 속에 무언가 희망적인 어떤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를 아감벤(Giorgio Agamben)이 「세속화 예찬」에서 언급한 세속화의 가능성에 대한 역량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잉여짓

아감벤은 「세속화 예찬」에서 환속화(secularizzazione)와 세속화

37)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20.

(profanazione)를 구분한다. 이 두 개념 모두 어원적으로 성과 속의 대립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환속화란 ‘성’의 종교적 질서를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유럽의 절대왕정국가는 중세의 기독교적 질서가 그대로 환속화된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성과 속의 구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세속화는 이 두 질서의 구분 자체를 문제시한다. 성화란 임의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식인데, 이 경계를 위반함으로써 성화된 것을 다시 속세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세속화이다. 다시 말해 성의 법적 질서를 속세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의 경계를 위반함으로써 법 자체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³⁸⁾

이제 다시 <김씨표류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직업도 소속도 없이 부모의 경제력에 철저히 의존하는 여자 김씨는 사이버 세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흠피를 관리하는 잉여짓으로 소일한다.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 행해지는 그녀의 잉여짓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의 소비자 사회를 똑같이 흉내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자 김씨는 소비자 사회의 질서, 특히 미와 추로 상품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가상의 세계에서 그대로 구현하고자 한다. 여자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매달려 있는 이 잉여짓 또는 ‘잉여질’은, 이런 의미에서 아감벤이 말한 환속화에 해당한다. 그녀는 돌로레스라는 가명으로 행세하며 자신을 가상의 완벽한 소비자라 둔갑시킨다.

어느새 변화가 한복판에 서있는 여자. 지나쳐 가는 제 각각의 사람들. 두리번거리던 여자의 눈에 누군가의 도트 무늬 구두가 들어온다. 그 순간, 갑자기 스톱모션. 화면으로 난데없이 커서가 등장한다. 도트 무늬 구두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실행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스톱모션이 풀리면. 다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도트 무늬 구두는 어느새 여자의 것이 되어 있다. 구두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여자. 이번엔 좀 더 빠르고 능숙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마르티즈... 화사한 원피스.... 등등을 같은 방식으로 훔친다. 모든 걸 갖춘 여자, 이제 마지막으로 훔치는 건..... 화상의

38) 조르조 아감벤, 「세속화 예찬」, 『세속화 예찬,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김상운 옮김, 난장, 2005, 113면.

상처가 없는..... 깨끗하고 예쁜 얼굴의 여자가 지나간다. 또 다시 스톱모션. 여자의 얼굴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커서. 이제 여자는 맘에 드는 얼굴까지 갖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흡족한 기분으로 자신감 있게 활보하는 그녀.³⁹⁾

도트 무늬 구두, 화사한 원피스, 화상의 상처가 없는 예쁜 얼굴로 여자의 변신이 마무리된다. 현실에서 추하고 무능력한 그녀가 가상에서 아름답고 유능한 소비자로 멋지게 변신한 것이다. 여자가 거주하는 가상의 사회는 현실의 소비자 사회의 질서가 완벽하게 실현된 곳이다. 여자는 이곳에서 현실에서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환속화의 전략은 그녀의 신상이 완전히 털리면서 실패로 끝나고 만다. 환속화의 논리에 따른 여자의 잉여짓은 현실의 욕망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또한 비록 가상의 사회이지만 전적으로 소비자 사회의 미학에 근거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잉여짓의 긍정적인 힘, 다시 말해 “잉여짓을 하는 자신의 상황을 두고 냉소적으로 유희하는” 일종의 “유희적 공통 코드”⁴⁰⁾에 이르지 못한다. 현실에서의 불량 소비자인 여자가 가상의 세계에서 잠시 동안 차지했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소비자의 역할은 네티즌의 이른바 ‘신상 털기’와 같은 작은 충격에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환타지’⁴¹⁾에 불과했던 것이다. 어쩌면 여자는 현상의 질서가 가상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순간 현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상에서도 쫓겨날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반면 남자 김씨는 밤섬에서 도시의 질서를 그대로 구축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상의 공간에서 여자 김씨가 신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한 소비자로 변신 시키고자 했다면, 고립무원의 밤섬에 갇힌 남자 김씨는 가상 혹은 상상으로라도 소비자 되기를 멈춘다. 아니 남자가 도달한 밤섬에서는 애시당초 소비자가

39)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30.

40) 김수환, 「너희가 병맛을 아느냐? 웰컴 투 더 <이말년 월드>」,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앞의 책, 107면, 117면.

41) 실제로 이해준 감독의 <김씨표류기> 시나리오에서 이 장면(#30)의 제목이 “환타지”로 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곳에서 남자에게 허락된 것은 도시가 버린 쓰레기들 뿐이기 때문이다. <김씨표류기> 시나리오에 적힌 그대로 “더 이상 바랄게 없는 완벽한 심심함” 속에서 남자는 남아도는 잉여의 시간에 잉여짓에 몰두한다.

청명한 하늘. 저 멀리 재미만한 비행기가 느릿하게 날고 있다. 갑자기 프레임 인하는 거대한 PET병. 비행기는 남자의 빈 PET병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보면, 모래사장에 누워 하늘에 대고 PET병을 들고 있는 남자. 비행기가 들어 간 PET병을 입에다 털어 놓고 오물오물..... 남남 소리까지 내며.... 나른한 오후. 나무 그늘 아래 대자로 누운 남자의 심심한 장난.42)

남자의 “심심한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PET병으로 샌들을 만들어 신고 선글라스 대신 폐품을 활용한 짝이 안 맞는 안경을 착용한 그는 막대기를 주워 골프 치는 시늉을 하면서 가끔 “나이스 샷”을 외치며 즐거워한다. 그런데 도시인들의 여가를 흉내 낸 이 장면은 우리가 보기에 앞서 여자 김씨가 보여준 흥피 꾸미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남자가 도시가 버린 쓰레기들로 밥섬의 삶을 꾸려가는 것은 도시의 질서 자체를 패러디하며 조롱하는 웃음의 효과를 유발한다. 아감벤의 구분을 다시 도입하자면, 이는 환속화보다는 세속화에 가깝다. 이런 관점에서 너무도 자장면을 먹고 싶었던 남자가 면발의 재료로 사용될 곡물의 씨앗을 얻기 위해 오리배에 붙어 있는 새똥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굵으면서” 예전에 무서워 굽지 못했던 카드를 신나게 굽는다며 좋아하는 장면이야말로 잉여짓에 담긴 ‘냉소적 유희의 코드’를 매우 유쾌한 방식으로 명쾌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도시에서는 더 이상 굽을 수 없게 된 신용카드로 새똥을 굽는 행위는 능력과 무능력으로 설계된 소비자 사회의 질서 자체를 우롱하는 세속화의 한 형태인 것이다.

3) 연대

소비자 사회에서 쓰레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

42)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28.

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⁴³⁾으로써 처리된다. 쓰레기가 되는 삶들 역시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삶들이다. <김씨표류기> 도입부에 등장하는 장면, 즉 무인도에 떠밀려온 남자 김씨가 유람선을 향해 구조를 요청하지만 그를 본 관광객은 그저 손을 흔들어 화답할 뿐 김씨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장면은 이 사회 안에 존재하지만 잊혀진, 지워지고 보이지 않는 쓰레기의 운명을 정확하게 간파한다. 영화의 주인공 여자 김씨와 남자 김씨는 바디우(Alain Badiou)의 표현을 빌자면⁴⁴⁾, 오늘날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고삐 풀린 경쟁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 땅의 수많은 잉여 혹은 루저들처럼 이 사회에서 ‘누군가’로 ‘재현’(representation)되지 않고, 각자 골방과 밤섬에 단지 ‘아무나’로 ‘현시’(presentation)만 하는 존재들이다. 또한 아렌트(Hannah Arendt) 식으로 말하자면⁴⁵⁾, 이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사적인 존재들이다. 공적인 세계를 박탈당하고, 사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공적 영역에서 자기를 대변할 목소리를 가질 수 없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애초에 자기 목소리를 낼 의지도 없고, 내야 할 이유도 모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봐야 아무도 잉여가 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말하지만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의 몫을 되돌리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우리는 <김씨표류기>에서 발견되는 두 잉여 인간들 사이의 연대에서 쉽지 않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한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던 남자 김씨를 처음으로 본 사람은 여자 김씨이다. 여자 김씨는 달을 관찰하던 망원경으로 밤섬에 착륙한 “외로운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 소비자 사회 내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존재가 외부의 시선, 즉 또 다른 잉여인간의 시선에 포착된 것이다.

이 외로운 외계 생명체와..... 일촌을 맺을 수 있을까요?⁴⁶⁾

43)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58-59면.

44)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조건들』, 새물결, 2006.

45)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9.

카메라를 통해 모래사장 위에 새겨진 HELP라는 말을 읽은 후부터 여자 김씨는 마치 인터넷 상에서 리플을 달 듯 남자 김씨의 보이지 않는 삶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오래 전부터 그곳에 쓰여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포착되지 않았던 HELP라는 메시지는 마침내 카메라 너머의 여자의 시선에 가닿으면서 마침내 가시화된다. 하지만 스스로도 잉여이며,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여자 김씨가 남자 김씨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화상으로 이마에 난 흉한 상처를 감추기 위해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골방에 칩거한 그녀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하는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첫 외출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나서야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여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완벽하게 감춘 다음에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다가간 것이다. 남자 김씨는 여자 김씨의 반응에 화답한다. 둘 사이에 오고 가는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I AM SORRY, CONGRATULATION 등의 메시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멀리 나가야 한다. 바로 남자 김씨가 여자 김씨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즉 WHO ARE YOU?라는 질문에 이러한 요구가 집약되어 있다. 여자 김씨에게 던져진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단지 골방에서 나올 것만을 주문하지 않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 밤섬에서 생존을 위해 홀로 몸부림치는 남자 김씨의 별거벗은 삶 자체에 관심을 보인 여자 김씨는 이제 스스로를 노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 김씨는 더 이상 자신의 추한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당당히 상처 난 자신의 맨얼굴을 드러내고 밤섬에서 쫓겨난 남자 김씨를 찾아 거리로 뛰어 나간다. 마침내 영화는 대단히 희망적인, 다소 로맨틱한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땀으로 범벅이 된 여자의 얼굴은 이제껏 볼 수 없는 생기로 가득하다.
 화상의 상처도 가릴 수 없는 당당한 생명력..... 그런 그녀가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다..... 그러자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한동안 그녀를 바라 보던 남자의 얼굴에도..... 서서히..... 환한 미소가 번진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영화는 그렇게 그들의 미소가 더 환해지기 전에..... 작은 가능성만 남겨 둔 채 가차 없이 커트되며 암전된다. 매우 경쾌한 음악이 흐른다.47)

외모로 인해 세상과 단절해 왔던 여자 김씨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침내 누더기를 걸친 무능력한 신용불량자 남자 김씨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여자에게 남자 김씨도 미소로 화답한다. 그들은 그렇게 잉여로서의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동시에 그들은 비록 이 사회에서 잉여로 분류되었지만 그들 역시도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소리 없이 증언한다. 혼자일 때는 철저히 가려지고 보이지 않던 두 사람이 서로 연대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회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어떤 의미를 되찾게 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작은 가능성”에 불과할지라도, 이들의 연대에서 우리가 미와 추로, 능력과 무능력으로 재단된 소비자 사회에 당당히 맞서고자 하는 결단의 표지를 읽어내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희망일까? 이어지는 결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제시하는 답변이 될 것이다.

5. 나가며 : 예외상태, 그 한계와 가능성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그들의 미소가 더 환해지기 전에” “가차 없이 커트되며 암전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영화에서 간파한 희망의 몸짓에 대한 미래를 회의하게 만든다. 민용준은 이 영화가 이해준 감독의 전작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미래가 드러나지 않는 영화”⁴⁸⁾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의 변은 다음과 같다.

47)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135.

48) 민용준, 앞의 기사.

나는 그 다음을 보여줄 엄두가 안 났다. 둘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만 앞으로 닥쳐질 삶이 마냥 행복할지, 아니면 어려울지 모른다. 아니면 마냥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려나. 쉽지도 만만치도 않은 앞길을 남겨 두고 끝내는 것이 나에게서는 최선의 책임이었다.⁴⁹⁾

주인공들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감독에 더해 평론가 김지미는 「그래도 동정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영화 평론에서 주인공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나란히 앉는 그 장면은 우리에게 별로 위안을 주지 못한다”고 냉철하게 선언한다. 세상은 공습경보로 잠시 멈추었지만 그것이 해제되면 다시 움직일 것이고, 세상이 다시 움직이면 그들은 또 다시 잠시 유예되었던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⁵⁰⁾.

사실 영화에서 여자 김씨가 밤섬에서 살아가는 남자 김씨를 발견한 순간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일 년에 두 번 찾아오는” 민방위훈련 사이렌이 울리고 난 뒤 주어진 20분간의 유예의 순간이다. 보이지 않던 두 삶이 서로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 세상이 아무도 없는 달과 같은” 이 가상의 예외 상태⁵¹⁾에서이다. 또한 골방에서 나온 여자 김씨와 밤섬에서 쫓겨난 남자 김씨가 실제로 모습을 마주 대한 것 역시 민방위훈련 사이렌이 울린 다음이다. 한편, 두 남녀 김씨가 거주한 골방과 밤섬 역시도 예외적인 공간이다. 골방은 현실도 가상도 아닌 공간이고, 밤섬은 도시도 자연도 아닌 공간이 아닌가. 예외상태의 위상학적 구조가 골방과 밤섬의 위상학적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민방위 훈련이라는 가상의 예외상태에서 이루어진 두 잉여적 삶의 접촉과 연대는 아감벤이 배제적 포함으로 정의한 추방령 하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외적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잉여적 존재들의 연대는 분명히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이며, 김지미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49) 같은 글.

50) 김지미, 앞의 기사.

51)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그럼에도 우리는 힘없고 불완전한 두 존재의 연대에서 비록 장밋빛 전망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자그마한 희망의 가능성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민방위훈련이 종료되고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두 남녀 김씨는 서로가 서로를 터치한다. 가상의 예외상태가 철회된 순간에 맞잡은 이들의 손은 분명한 한계 속에서도 이 영화에서 자장면으로 형상화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잉여로, 쓰레기로 내모는 현대 소비자 사회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경쟁과 배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는 없다 해도, 잉여의 연대가 수백의, 수만의, 수백만의 맞잡은 손으로 확대된다면 적어도 바깥으로 내몰리고 잉여로 분류된 쓰레기가 되는 삶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배정받지 못했던 그들의 몫을 돌려주게 되리라는 희망 말이다. 이 희망이야말로 유동하는 근대에 쓰레기가 되는 삶의 잠재적 전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 참고 문헌

- 김수환, 「너희가 병맛을 아느냐? 웰컴 투 더 <이말년 월드>」,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이파르, 2011.
- 김지미, 「그래도 욕망을 구걸하지 않는다」, 『씨네 21』, 2009.6.4일자.
- 듀나, 「김씨표류기 리뷰」, *Extreme Movie*, 2009.4.29일자.
- 민용준, 「욕망을 통해 진화하는 이야기꾼 <김씨표류기> 이해준 감독」, 『무비스트』, 2009.5.28일자.
- 백소영, 「잠재성을 잉여라 부르는 세상」,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이파르, 2011.
- 알랭 바디우, 『조건들』, 이종영 옮김, 새물결, 2006.
- 이영진, 「일정한 격리를 통해 생을 갈구하는 두 남녀 <김씨표류기>」, 『씨네 21』, 2009.5.13일자.
-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현경 옮김, 민음사, 2007.

이해준, <김씨표류기> 시나리오.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 b, 2008.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김항 옮김, 새물결, 2009.

_____, 『호모 사케르』, 박건우 옮김, 새물결, 2008.

_____, 『세속화 예찬』, 김상운 옮김, 난장, 2005.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2008.

_____, 『새로운 빈곤』, 이수영 옮김, 천지인, 2004.

_____, 『액체근대』, 이일준 옮김, 강, 2000.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2009.

❖ ABSTRACT

‘Castaway on the moon’:
A sociological report on the global consumer society

Junga SHIN and Yong Ho CHOI

In this paper we attempt to read a film by Haejoon LEE entitled ‘Castaway on the moon’ from the Bauman’s modernity perspective that draws our attention to uncomfortable problems relative to wastes and wasted lives in the global consumer society we all live in. The so-called consumer society is a post-modern society desig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wo criteria: on the one hand, beauty and ugliness and on the other hand, competence and incompetence. Classified as ugly as well as incompetent in this society, the two heros in this film are condemned to live their lives isolated. Miss Kim is confined to her small room while Mr. Kim is exiled to an uninhabited island called ‘Bamsun’ in the Han River. In these spaces, neither inside nor outside, they perform what we would like to call ‘surplus act’, using wastes at their disposal. In this paper we ask ourselves whether or not this act is able to challenge the two criteria and the solidarity of the two wasted lives can bring about change in the consumer oriented society. As well as Bauman, Agamben will help us approach this question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Key Words

현대성, 유동성, 소비주의, 잉여, 쓰레기가 되는 삶들, 김씨표류기, 연대
modernity, liquidity, consumerism, surplus, wasted lives, Castaway on the Moon,
solidarity

논문접수일: 2011. 10. 25.

심사완료일: 2011. 11. 28.

게재확정일: 2011. 12. 10.